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마산·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정혜경[†] · 김세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A Study on School Uniform and Ornaments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Hye-Gyung Chung[†] and Se-Hee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3. 10. 9. 접수 : 2004. 1.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high school girl students used their school uniforms and what types of ornaments they preferred,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image of school uniform.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52.6 percent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altered their uniforms, and as for the major alteration style, revival one to take them in to be well-fitting was dominant. But concerning skirts, hip-hop style was also found. The students viewed ornaments more favorably, as the larger group of the students perceiv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hool-uniform alteration yet not to control ornaments. Concerning how much they wore school uniforms, most of them continued to wear them outside school in many cases. Specifically, those who engaged in pastime or went shopping wearing school uniforms enjoyed altering them, and they also enjoyed using ornaments that weren't allowed by the school dress code. Second, as to school-uniform image, elegant image was most preferred, followed by practical, innocent and fashion-conscious ones. They were most preferred with its elegant image. Third, as to ornaments image, they were most preferred with its positive image.

Key words: alteration style(변형 스타일), revival style(복고 스타일), hip-hop style(힙합 스타일), elegant image(플워있는 이미지), positive image(적극적인 이미지).

I. 서론

청소년기로 대변되는 중·고등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하고 자기가 평가한 자아상이 아닌 타인이 평가한 자아상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심리적 불안 또는 신체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복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본 논문은 2003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measo@kyungnam.ac.kr

학교에서는 교복 착용을 규정하여,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억제시키고 의복을 통일함으로써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입혀지기 시작하여 1983년 교복자율화 정책으로 폐지되었다가 1986년부터 학생지도의 어려움,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교복착용이 다시 허용되었다. 최근 교복은 이전의 거의 획일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으며, 교복의 제작과 구입방법도 '80년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대중문화와 영상매체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르고 앞장서려는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복착용의 보편화와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그동안 교복이라는 규제에 묶여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의 표현을 자제해 왔던 데서 벗어나, 성인의복을 모방하거나 포레 집단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등의 학교 복장규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의생활 태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교복은 착용 범위가 확대되어 학교 외의 공간에서도 착용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교내 복장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복 행동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장신구 착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그동안 청소년의 의복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연구에 한정된 경향이 많았으며, 장신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복과 더불어 착용되는 장신구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여고생의 복장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대한 연

구로서 먼저 교복과 장신구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여고생이 지니는 교복이미지와 장식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선호하고 반쪽하는 교복 디자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여고생들의 교복 및 장식 행동을 이해하고 교내 복장 지도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교복 및 장식행동

1) 교복행동

교복은 같은 연령범주, 같은 학교, 같은 목적 하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는 것과 단체행동의 통일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수단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복의 장점은 행동의 조심성과 학생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경제적이고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신분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미적 감각과 개성이 결여되기 쉽고 비활동적이라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¹⁾.

교복 자율화 이후 교복의 착용이 다시 허용됨에 따라 교복과 자유복에 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이수희²⁾의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교복 착용에 대해 부모, 교사, 학생 순으로 찬성했으며 현 교복에 대한 만족 정도는 부모는 하층이, 학생은 상층이 컸으며, 여고생이 남녀공학생보다 더 만족했고, 교사나 부모보다 학생의 불만족이 컸다. 교복 착용 시 불만인 점은 활동이 불편하다고는 것이었으며, 교복 만족의 이유는 단정하고 학생다워 보인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내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희³⁾의 연구에서는 교복 선호도가 자유복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보다는 강북이, 상층보다는 중·하층이 교복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의복이 더욱 개성화 되고, 다양한 소재

1) 김영인, 강혜원,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권 2호 (1981), pp. 13-28.

2)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3) 김윤희,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교복 역시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으며, 교복의 제작과 구입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은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교복 변형 행동과 관련된 황진숙 외 3인⁴⁾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복 변형을 많이 하여 상의 품과 상의 어깨를 좁게, 상의 소매와 바지(치마) 길이를 짧게, 바지(치마) 둘레를 더 좁게 변형하여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교복변형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복 변형의 기준은 당시 유행하는 기성세대에서의 패션아이템을 차용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로 험령한 힙합(hiphop) 스타일과 타이트한 복고스타일을 들 수 있다⁵⁾. 또한 고에란 외 2인⁶⁾의 연구에 의하면 여고생들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이며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과 길이를 줄이는 것도 비교적 많은 수가 나타났다. 의복의 과시성이나 사회적 승인성을 추구할수록 교복을 변형하여 입었으며, 교복선호도 요인과 의복 정숙성 요인이 교복변형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유행관심요인, 의복의 신분 상징성 요인, 안락감 및 부족요인 및 교복의 긍정적 효과요인이 교복변형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장식행동

교복착용 외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복식행동으로는 장식 행동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장신구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패션 코디네이트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의복착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품이며, 항상 의복과 함께 착용되는 불가분의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대부분 교복을 입기 때문에 장식에 관심이 없고 유행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여학생들의 장신구 착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장신구 착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신구에 관한 최은영⁷⁾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은 학교 다닐 때 항상 장신구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외출시 옷에 맞출 때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 다닐 때 항상 장신구를 사용하고, 대도시로 갈수록 외출시 옷에 맞추기 위해 장신구를 사용하여, 교내 외에서 모두 장신구 사용이 많아 장신구에 대한 이해와 착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

청소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복장규제는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생다운 옷차림에 대한 규제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특정 의복에 대한 규제를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등교시의 교복 착용과 함께 복장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복장 규정은 학교별로 규제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학생 용의 복장'에 관한 교칙 조사 결과 대개는 두발, 복장, 신발, 양말,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불응시 처벌 규정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 파괴의 '저항적 즐거움'을 갖게 하는데 그들은 교복의 변형을 통해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항적 전략을 행사하게 된다.

연구자는 본 조사에 앞서 창원과 마산지역에 소재한 총 8개 조사 대상 학교의 '학생 용의복장 규정'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착용 원칙과 금지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학생다운 단정함과 깨끗함, 검소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유행선도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규정

4) 황진숙 외 3인,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3호 (2002), pp. 243-247.

5) 안선경, 양숙희, "복식에 대한 검열방식 연구: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와 방송복장심의 규제를 중심으로," *복식* 51권 1호 (2001), pp. 105-117.

6) 고에란 외 2인,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1999), pp. 31-41.

7) 최은영,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54-58.

내용들은 시대적 변화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교복 이미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없는 외모를 보완하는 한편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외모를 선택하고 통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의복은 착용한 사람과 관련하여 판단되므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교복 이미지와 장신구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교복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장신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교복 이미지에 대한 황진숙 외 3인⁸⁾의 연구에 의하면 교복은 선호하는 이미지에 따른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며, 교복 선호이미지는 편안하고 단정함, 독특하고 개성적인, 지적이고 클래식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 선호이미지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여학생은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정현주⁹⁾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우리옷 교복에 대한 태도와 만족감 간의 관계에서 우리옷 교복에 대한 이미지 중 디자인성과 외관성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신구 행동의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 여고생의 교복이미지와 장신구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 여고생이 추구하는 교복 및 장신구 이미지를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본 조사는 경상남도 창원, 마산시 소재 8개교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2년 12월 20일~12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별로 70명씩 총 560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여 학급별 집단검사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그 중에서 불충분한 자료나 신뢰성이 부족한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538부를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교복 변형 행동 : 교복 변형 행동은 상의의 경우 춘추복, 하복의 블라우스와 자켓, 조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길이, 폭, 어깨, 소매의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고, 하의의 경우 등절기에 바지를 착용하는 학교가 있어 바지를 포함한 스커트의 길이, 폭, 허리둘레의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복의 변형 정도는 교복 전체의 변형 여부를 자신이 평가하여 선택하는 4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교복 변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복 변형 행동의 이유 문항들은 고애란 외 2인¹⁰⁾의 연구와 남해영¹¹⁾, 윤경자¹²⁾ 연구의 의복선택요인을 참고하여 미적인 측면 4문항, 심리적인 측면 4문항, 실용적인 측면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교복을 변형한 학생들에게만 질문하였다.

2) 장식 행동: 조사 대상 학교의 용의규정에 금지조항으로 제시된 장식행동, 현직 교사가 제시한 학생들의 장식 행동과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기타에 답한 다양한 장식 행동을 수정·보완하여 총 22문항의 장식 행동을 제시하였다.

8) 황진숙 외 3인, *Op. cit.*, pp. 243-247.

9) 정현주, "우리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6권 7호 (2002), pp. 1105-1113.

10) 고애란 외 2인, *Op. cit.*, pp. 31-41.

11) 남해영, "중학생의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28-31. 남해영은 의복선택요인을 심미성, 심리적 만족감, 신체적 안락감, 품질, 경제성, 유행성으로 구분하였다.

12) 윤경자,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고교생의 계열 및 성별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23-24. 윤경자는 의복선택의 기준을 유행성, 품질, 개성, 경제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3) 교복이미지: 교복이미지는 선행연구¹³⁾의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은 .9406이었다.

4) 장식이미지: 교복 추구이미지의 측정 문항과 동일하게 제시하여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한 일반적인 실태분석은 빈도분석,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교복 이미지, 교복만족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χ^2 ,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538명으로 창원지역의 학생 268명(49.8%), 마산지역의 학생 270명(50.2%)이었다.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28.3%)과 사무직(27.9%)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절반 이상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전업주부(4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58.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졸 이상(35.3%)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74.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1~45세(47.1%)와 46~50세(42.6%)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68.9%), 40세 이하(15.6%), 46~50세(12.6%) 순으로 나타났다.

2. 교복 및 장식 행동의 실태

1) 교복 변형 행동

(1) 교복 변형 여부

전체 조사대상자 538명 중 255명(47.4%)은 교복을 전혀 변형하지 않았으며, 아주 조금 변형은 20.4%, 조금 변형하였다는 응답은 29.0%, 아주 많이 변형하였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이상을 교복을 변형하지 않은 그룹과 교복을 변형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변형하지 않은 그룹은 255명(47.4%), 변형한 그룹은 283명(52.6%)로 변형한 경우가 더 많았다.

(2) 교복 변형 부위

본 조사의 교복의 변형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각 조사 대상 학교의 교복을 조사한 결과, 춘추복의 경우 춘추복 블라우스와 조끼,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복의 경우는 하복 블라우스와 스커트, 동복의 경우 춘추복에 자켓을 입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지의 경우, 8개의 조사 대상 학교 중 1개의 학교만이 동복을 입을 때 스커트와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교복의 변형 부위에 대하여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1, 2). 상의의 경우 교복을 변형한 283명 중 자켓은 145명(51.2%), 조끼는 119명(42.0%), 블라우스 춘추복은 46명(16.3%), 블라우스 하복은 85명(30.0%)이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 부위는 품, 길이, 어깨넓이, 소매길이를 모두 줄이는 것이 늘리는 비율보다 많았다. 본 조사에서 블라우스 춘추복을 제외하고 상의의 품을 변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¹⁴⁾에서 상의의 품을 줄이는 경우가 2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의의 경우 교복을 변형한 283명 중 스커트와 바

13) 김은애, 이명희,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18호 (1992), pp. 269-281.
황진숙, 나영주,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도의 관계 연구," 복식 49호 (1999), pp. 71-81.
문미아, 박혜선, "남자 중·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 pp. 748-759.

홍병숙,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권 3호 (1998), pp. 373-382. 한복과 양장의 이미지에 대한 상위점수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단정한 측면, 고급·화려한 측면, 활동적, 산뜻한, 품위측면으로 구분되었다.

14) 고애란 외 2인, *Op. cit.*, pp. 31-41.

〈표 1〉 교복 상의 변형 부위^a

상의변형부위			응답수(%)		상의변형부위			응답수(%)	
자켓 n=145 (51.2%)	길이	짧게	102	104 (71.7)	블라우스 춘추복 n=46 (16.3%)	길이	짧게	24	26 (56.5)
		길게	2				길게	2	
	폼	줄임	106	109 (75.2)		폼	줄임	35	35 (76.1)
		늘임	3				늘임	0	
	어깨넓이	줄임	97	98 (67.6)		어깨넓이	줄임	36	36 (78.3)
		늘임	1				늘임	0	
	소매길이	줄임	67	72 (49.6)		소매길이	줄임	20	24 (52.2)
		늘임	5				늘임	4	
조끼 n=119 (42.0%)	길이	짧게	71	72 (60.5)	블라우스 하복 n=85 (30.3%)	길이	짧게	67	69 (81.2)
		길게	1				길게	2	
	폼	줄임	111	116 (95.0)		폼	줄임	72	75 (88.2)
		늘임	5				늘임	3	
	어깨넓이	줄임	50	50 (42.0)		어깨넓이	줄임	54	55 (64.7)
		늘임	0				늘임	1	
	소매길이	줄임	50	50 (42.0)		소매길이	줄임	30	33 (38.8)
		늘임	0				늘임	3	

^a: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표 2〉 교복 하의 변형 부위^a

하의변형부위			응답수	응답률(%)	
스커트 n=220 (77.7%)	길이	짧게 변형	112	149	67.7
		길게 변형	37		
	폭	줄임	158	179	81.3
		늘임	21		
	허리둘레	줄임	73	73	33.2
바지 n=51 (18.0%)	길이	짧게 변형	27	27	52.9
		길게 변형	0		
	폭	줄임	50	50	98.0
		늘임	0		
	허리둘레	줄임	12	12	23.5

^a: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지를 변형하였다는 응답자는 각각 220명(77.7%), 51명(18.0%)으로 나타나, 상의에 비해 하의를 변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변형 형태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스커트와 바지 모두 길이를 짧게 하고 폭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커트 변형의 경우, 폭의 변형(81.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길이의 변형(67.7%)이었으며, 모두 늘이는 비율보다 줄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 외 2인(1999)¹⁵⁾의 연구에서 스커트 길이를 무릎 길이 이상으로 줄이고(56.4%) 스커트의 폭을 줄이는 것(39.6%)과 비교해 볼 때 변형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으며, 최근 신체에 밀착된 의복의 유행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스커트의 변형에 있어서 길이를 길게 하고, 폭을 늘인 경우도 다른 품목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힙합 스타일의 영향을 받

15) 고애란 외 2인, *Ibid.*, pp. 31-41.

영한 것이며, 이러한 형태도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안선경 외 1인, 2001)¹⁶⁾에서는 서울의 강남·북의 폐선이 확인한 차별화 성향을 보여, 강남의 남학생은 헐렁한 바지의 밑단 부분을 줄여서 입고 교복 밖으로 남방을 레이어드 형식으로 착용하는 힙합 스타일의 교복 변형을 나타내며, 강북의 여학생은 상의의 어깨와 품, 팔 길이를 줄이고, 스커트 폭을 힙선이 드러나도록 줄여 착용하는 북고풍 스타일의 교복 변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처럼 교복 변형의 형태가 힙합 스타일과 북고풍 스타일의 집단으로 차별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몸에 꼭 맞도록 줄이는 형태의 북고풍 스타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두 가지 스타일의 변형 형태가 모두 나타났다.

(3) 교복 변형 이유

교복을 변형하였다고 응답한 283명을 대상으로 교복 변형 이유를 조사하여 보았다. 교복 변형 이유

〈표 3〉 교복 변형 이유^{a)}

변형이유		응답수(%)
미적인 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112(20.8)
	개성 추구를 위해서	69(12.8)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서	60(11.2)
	키가 커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43(8.0)
심리적인 면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51(9.5)
	친구들과 비슷하기 위해서	36(6.7)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해서	10(1.9)
실용적인 면	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218(40.5)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82(15.3)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40(7.4)
	학생답고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24(4.5)
기타		19(3.5)

^{a)}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값은 .7401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교복을 변형한 이유는 〈표 3〉과 같이 실용적인 면, 미적인 면, 심리적인 면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교복을 변형한다는 응답(40.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20.8%),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15.3%), 개성 추구를 위해서(12.8%),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서(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의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의 교복 변형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몸에 맞도록 교복을 변형함으로써 날씬하게 보이도록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고, 또래 집단 사이의 유행 스타일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교복 변형에 대한 부모의 반응

청소년들의 유행 선도 욕구는 교복의 변형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교복 변형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의견과 결정으로만 교복 변형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교복을 변형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과 의논을 하고 변형하였는지 알아봄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복 변형을 하는 데에 있어 교복을 변형한 283명 중 71.7%는 부모와 의논을 하고 변형하였으며, 나머지 28.3%는 의논을 하지 않고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을 변형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면 변형에 '적극 반대'는 5.0%, '반대' 18.7%, '그저 그렇다' 62.2%, '적극 찬성' 14.1%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교복변형에 대해 묵과하는 소극적 찬성의 입장으로 해석해 볼 때, 변형을 인정하는 비율(76.3%)이 반대하는 입장(23%)보다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학생들의 교복 변형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대하게 지켜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2) 장식 행동

본 조사에서는 학교 용의규정에 규제된 장식에

16) 안선경, 양숙희, *Op. cit.*, pp. 105-117.

대한 행동과,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장식 행동으로 나누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규제된 장식 중 매니큐어(43.5%)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핀, 고무줄 등의 화려한 머리장식(39.0%), 목걸이(20.7%), 반지(16.1%), 팔찌(15.8%), 화장(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장식으로는 핸드폰, 호출기 장신구(73.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패션시계(48.5%), 가방 장식용 열쇠고리(23.7%), 컬러렌즈(13.0%)의 순이었으며, 피어싱도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전체 장식 행동 중 액세서리의 사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매니큐어와 화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 교복 변형 및 장식 행동의 규제 필요 여부 및 이유

(1) 교복 변형의 규제 필요 여부 및 이유

교내 용의복상 규제에 대하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규제복장을 더 많이 거부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거부하는 정도가 더 높다(이명희, 1999)¹⁷⁾.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여고생들의 교내 용의복상 규제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교복 변형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93명(54.5%)으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245명(45.5%)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규제 필요 이유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8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내 질서가 유지되므로(51.5%), 학생신분을 지킬 수 있으므로(4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많이 변형한 교복은 변형 안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므로, 나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반면 교복 변형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표 4〉 교복 변형 규제 필요 여부 및 그 이유^{a)}

교복 변형 규제 필요여부 및 이유		응답수(%)
규제 필요 n=293 (54.3%)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238(80.7)
	교내 질서가 유지되므로	152(51.5)
	학생신분을 지킬 수 있으므로	123(41.8)
	행동을 조심하게 되므로	74(25.1)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17(5.8)
	기타	21(7.1)
규제 불필요 n=245 (45.5%)	학생에 대한 심한 구속이 되므로	176(72.4)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145(59.7)
	구시대적인 규제이므로	108(44.4)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없으므로	87(35.8)
	창의성을 기를 수 없으므로	63(25.9)
	기타	38(15.6)

^{a)}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집단은 학생에 대한 심한 구속이라는 이유(7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59.7%), 구시대적인 규제이므로(44.4%),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없으므로(35.8%)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기타 응답은 체형으로 인한 변형은 상관없으므로,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으므로, 학생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지나치지 않은 것은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등이 있었다.

(2) 장식 행동의 규제 필요 여부 및 이유

여고생의 장식 행동 규제의 필요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장식 행동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9명(48.1%),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9명(51.9%)으로 나타났는데, 교복 변형에 대한 규제 필요 여부와는 반대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은

17) 이명희,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호 (1999), pp. 143-158.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와 같이 교복 변형 행동의 규제와는 반대로 장식 행동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것은 선행연구(유덕화, 1991)¹⁸⁾에서 여학생은 복장 규정에 대하여 두발, 신발, 액세서리의 자율을 가장 원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장식 행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이유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71.0%)가 교복 변형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동일한 결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과소비를 방지하므로(48.6%)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여 교복에 대한 규제 필요 여부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장식 행동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학생에 대한 심한 구속이 되므로(7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 규제의 불필요 이유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표 5〉 장식 행동 규제 필요 여부 및 그 이유^{a)}

장신구 사용 규제 필요여부 및 이유		응답수(%)
규제 필요 n=259 (48.1%)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유지할 수 있으므로	184(71.0)
	학생신분을 지킬 수 있으므로	127(49.0)
	과소비를 방지하므로	126(48.6)
	질서가 유지되므로	96(37.1)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32(12.4)
기타	11(4.2)	
규제 불필요 n=279 (51.9%)	학생에 대한 심한 구속이 되므로	206(73.8)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174(62.4)
	구시대적인 규제이므로	121(43.4)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없으므로	103(19.1)
	창의성을 기를 수 없으므로	72(25.8)
	기타	36(12.9)

^{a)} :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교복 변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며, 장식 행동의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교복 변형 행동보다 장식 행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교복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장식 행동의 규제는 학생에 대한 심한 구속이며 개성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견해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복의 변형 후에는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려우며, 외관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장식 행동은 교복의 변형 행동보다 외관적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으며, 장신구는 취급이 용이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탈착용이 가능하여 쉽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4) 교복 착용 심황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교복을 착용하므로 교복은 청소년들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방과후의 시간은 학교 외의 공부나 쇼핑, 친구와의 만남 등으로 보내며 이 때에 사복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교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복을 착용하는 상황이 교복 변형행동 및 장식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교복의 착용 상황은 학교 외의 공간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복 착용상황을 조사한 결과 먼저 타학교 축제 때 교복을 착용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79.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축제라는 행사가 다른 장소가 아닌 교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교내에서의 착용을 제

18) 유덕화,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학교에서의 복장규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44-47.

<표 6> 교복의 착용상황 (n=538)

교복의 착용상황	응답수(%)
다학교 축제때	427(79.4)
학원에서	268(49.8)
동성친구를 만날 때	203(37.7)
동아리 활동할 때	188(34.9)
변화가를 쇼핑할 때	171(31.8)
공공 도서관에서	153(28.4)
독서실에서	134(24.9)
영화관람할 때	128(23.8)
집 근처를 쇼핑할 때	112(20.8)
이성친구를 만날 때	100(18.6)
게임방에서	94(17.5)
기타	28(5.2)
가족행사때	10(1.9)
명절때	2(0.4)

⁹: 부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임.

외하면 학원에서 교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538명 중 거의 반 정도(49.8%)가 학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성친구를 만날 때,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변화가를 쇼핑할 때, 공공 도서관에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응답으로 학교 후 곧장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경우, 합창제, 음악회를 갈 때였다.

이와 같이 학교 외의 공간에서의 교복 착용 비율은 높은 편으로 교복이 과거 사복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착용 상황별 교복의 착용은 교복의 변형 행동과 장식 행동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교복의 착용 상황을 유사한 상황끼리 묶어서 학업, 오락·쇼핑, 학교활동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교복을 착용하느냐 착용하지 않느냐의 착용 유무에 따른 교복 변형 행동과 장식행동을 교차분석하였다. 학업 상황은 공공 도서관, 독서실, 학원이 포함되며, 오락·쇼핑의 상황은 게임방, 쇼핑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영화관람할 때가 포함되고, 학교 활동은 축제,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다. 교복 착용 상황별 교복 변형 및 장식 행동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교복 착용 상황별 교복 변형 및 장식 행동 N(%)

교복착용상황		교복 변형 행동			장식 행동					
		변형안함	변형함	χ^2	규제된 장식		χ^2	규제되지 않은 장식		χ^2
					사용안함	사용함		사용안함	사용함	
학업	비착용 (n=195)	99 (18.4)	96 (17.8)	1.394	64 (11.9)	130 (24.3)	.071	25 (22.9)	168 (32.2)	.339
	착용 (n=343)	156 (29.0)	187 (34.8)		109 (20.3)	233 (43.5)		37 (7.1)	292 (55.9)	
오락 쇼핑	비착용 (n=249)	131 (24.3)	118 (21.9)	5.052**	107 (80.4)	142 (26.5)	24.338*****	31 (5.9)	215 (41.2)	.233
	착용 (n=289)	124 (23.0)	165 (30.7)		66 (12.3)	221 (41.2)		31 (5.9)	245 (46.9)	
학교 활동	비착용 (n=88)	46 (8.6)	42 (46.3)	1.003	36 (6.7)	52 (9.7)	3.590	14 (2.7)	73 (14.0)	1.772
	착용 (n=450)	209 (38.8)	241 (44.8)		137 (25.6)	311 (58.0)		48 (9.2)	387 (74.1)	

*p<.05, *****p<.001.

본 조사에서 교복 변형 및 장식 행동은 교복 착용 상황 중에서 학업 상황과 학교활동 상황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오락·쇼핑의 상황은 교복 변형 및 장식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락·쇼핑 상황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여고생이 교복을 변형하고 용의 규정에 제시된 규제 장식을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복의 착용 범위의 확대는 교복의 변형 행동과 장식 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교복은 청소년들의 의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교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교복 착용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복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여고생의 교복 이미지

1) 교복 이미지 요인분류

교복 이미지의 요인은 33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을 하여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대해 높은 적재량을 갖는 문항을 제외하고 Varimax에 의한 적교회전을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표 8).

요인 1은 품위있다, 깔끔하다, 단정하다, 지적으로 보인다 등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품위성'으로 명명하였으며, 41.192%의 분산율을 보여 모든 하위차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요인 2는 섹시하다, 해방감을 준다, 귀엽다, 유행에 민감하다 등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유행성'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산율 8.785%를 차지하였다. 요인 3은 활동적이다, 편안하

〈표 8〉 교복이미지 요인분류

요인명	교복이미지 내용	요인부하량	분산율 (누적분산율)	고유값
요인 1. 품위성	품위있다	.790	41.192 (41.192)	10.710
	깔끔하다	.720		
	단정하다	.712		
	지적으로 보인다	.633		
	여성스럽다	.627		
	정돈감이 있다	.602		
	세련되었다	.594		
	예의바르게 보인다	.572		
고급스럽게 보인다	.537			
요인 2. 유행성	섹시하다	.709	8.785 (49.977)	2.284
	해방감을 준다	.668		
	귀엽다	.667		
	유행에 민감하다	.662		
	자율적이다	.605		
	활발하게 보인다	.559		
	특별하게 보인다	.503		
	산뜻하다	.488		
	사교적이다	.461		
적극적이다	.439			
요인 3. 실용성	활동적이다	.769	6.326 (56.303)	1.645
	편안하다	.753		
	실용적이다	.619		
	경제적이다	.617		
요인 4. 순수함	순수하다	.652	4.149 (60.451)	1.079
	차분하다	.638		
	솔직하다	.635		

다, 실용적이다, 경제적이다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편안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산율 6.326%였다. 요인 4는 순수하다, 차분하다, 솔직하다의 이미지를 포함한 '순수함'의 이미지로 분산율은 4.149%를 차지하였다. 이들 4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0.451%였다.

2) 여고생이 추구하는 교복이미지

여고생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교복 변형 행동 규제 필요 여부에 따른 교복이미지를 조사하였다.(표 9) 그 결과 선호하는 교복이미지는 품위성, 실용성, 순수함, 유행성의 순이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황진숙 외 3인(2002)¹⁹⁾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 편안하고 단정한 이미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의 순으로 교복이미지를 선호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적으로 보인다와 세련되었다는 이미지가 포함된 품위있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은 삼성패션연구소(1998)²⁰⁾의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여성이미지에서 지적/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는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고생의 교복 변형 행동 규제 필요 여부에 따라

〈표 9〉 교복 변형 행동의 규제 필요 여부에 따른 교복이미지

교복 이미지	규제 필요 여부		합계	t-value
	규제필요 (n=293)	규제불필요 (n=245)		
	M(SD)	M(SD)	M(SD)	
요인 1. (품위성)	3.4983 (.7225)	3.2757 (.8036)	3.3870 (.7631)	3.381***
요인 2. (유행성)	2.3766 (.6810)	2.4163 (.8475)	2.3965 (.7643)	-.592
요인 3. (실용성)	3.1852 (.8261)	3.0357 (.7961)	3.1105 (.8111)	2.124*
요인 4. (순수함)	3.0978 (.7770)	2.9537 (.8986)	3.0258 (.8378)	1.969

*p<.05, ***p<.001.

19) 황진숙 외 3인, *Op. cit.*, pp. 243-247.

20) <http://www.sfi.co.kr>

21) 황진숙 외 2인, *Op. cit.*, pp. 243-247.

교복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품위있는 이미지와 실용적인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교복의 품위있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선행연구(황진숙 외 3인, 2002)²¹⁾에 의하면 남녀 모두 교복의 변형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 선호와 관련이 있었으며, 독특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현재의 교복에 불만족하여 교복 변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는 본 조사의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에서는 교복 변형 행동 규제의 필요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여고생의 장신구 이미지

1) 장신구 이미지 요인분류

여고생의 장식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신구 이미지를 조사하였으며, 문항은 교복이미지 요인과 같은 33개 문항이었다. 장신구 이미지에 대한 요인 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대해 높은 적재량을 갖는 문항을 제외하고 Varimax에 의한 적교회전을 하여 요인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총 분산율은 63.467%였다.

각 요인별 특징을 보면, 요인 1은 예의바르게 보인다, 차분하다, 정돈감이 있다, 단정하다 등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단정함'라고 명명하였다. 분산율은 39.732%로 모든 하위차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요인 2는 개방감을 준다, 활발하게 보인다, 적극적이다 등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적극성'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산율은 11.315%를 차지하였다. 요인 3은 예쁘다, 귀엽다, 세련되었다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세련미'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산율은 5.325%에 해당되었다. 요인 4는 편안하다, 활동적이다의 이미지를 포함한 '편안함'의 이미지로 3.866%의 분산율을 차지하였다. 요인 5는 세시하다, 어른스럽다,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성숙미'로 명명하였으며, 분산율 3.229%를 차지하였다. 이상 5개 요인의

〈표 10〉 장신구 이미지 요인 분류

요인명	추구이미지 내용	요인부하량	분산율 (누적분산율)	고유값
요인 1. 단정함	예의 바르게 보인다	.816	39.732 (39.732)	12.714
	차분하다	.810		
	정돈감이 있다	.788		
	순수하다	.767		
	단정하다	.727		
	실용적이다	.681		
	깔끔하다	.633		
	경계적이다	.620		
	산뜻하다	.596		
	단순하다	.569		
	지적으로 보인다	.564		
품위있다	.519			
요인 2. 적극성	해방감을 준다	.777	11.315 (51.047)	3.621
	활발하게 보인다	.750		
	적극적이다	.707		
	자율적이다	.622		
	자신감 있어 보인다	.582		
	솔직하다	.575		
	사교적이다	.541		
	유행에 민감하다	.540		
	친근감을 준다	.545		
요인 3. 세련미	예쁘다	.774	5.325 (56.372)	1.704
	귀엽다	.689		
	세련되었다	.660		
	여성스럽다	.548		
	특별하게 보인다	.544		
개성있다	.542			
요인 4. 편안함	편안하다	.721	3.866 (60.238)	1.237
	활동적이다	.657		
요인 5. 성숙미	섹시하다	.739	3.229 (63.467)	1.033
	이른스럽다	.609		
	고급스럽게 보인다	.496		

〈표 11〉 여고생이 추구하는 장식이미지

장식이미지	요인 1 (단정함)		요인 2 (적극성)		요인 3 (세련미)		요인 4 (편안함)		요인 5 (성숙미)	
	M	SD								
		2.7382	.7235	3.3939	.7457	2.8158	.8645	2.9298	.9059	2.9679

총 설명력은 63.467%였다.

2) 여고생이 추구하는 장식이미지

본 조사 대상인 여고생의 장식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장식의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교복의 경우 품위 있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표 1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대한 연구로서 교복과 장신구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여고생이 지니는 교복이미지와 장식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은 52.6%가 교복을 변형하였으며, 변형 형태는 몸에 꼭 맞도록 줄이는 복고 스타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스커트의 변형에 있어서 길이를 길게 하거나 폭을 늘이는 힙합 스타일의 변형도 나타났다. 교복을 변형한 이유는 몸에 맞도록 하여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며, 또래 집단 사이의 유행 스타일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복 착용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어 사복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식 행동으로는 학교 용의규정에 제시되고 있는 매니큐어와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핸드폰 및 호출기 장신구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장식 행동 중 액세서리의 사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교복 변형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장식 행동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아 장식 행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여고생의 교복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즉 품위성, 유행성, 실용성, 순수함의 이미지로 구성되었으며 60.45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여고생이 추구하는 교복이미지는 품위성, 실용성, 순수함, 유행성의 순으로 나타나 품위 있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교복 변형 행동의 규제 필요 여부에 따른 교복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품위있고 실용

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셋째, 여고생의 장식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단정함, 적극성, 세련된, 편안함, 성숙미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63.46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여고생이 추구하는 장식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교복의 경우 품위있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창원·마산 지역의 여고생 1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교복 행동에 대한 지도방안과 교복 제작 업체에서의 교복제작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고생들은 다양한 교복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착용범위가 확대됨으로 교복을 변형하거나 장신구 착용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복 문화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 및 교복 제작업체의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교복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다. 즉 여고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이미지는 품위성 요인-품위 있는, 단정함, 지적인, 여성스러운, 세련된, 예의바른,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이 중요한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복 제작업체에서는 이러한 교복 이미지를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고생의 장식 행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학교측에서는 더 이상 장식 행동을 규제만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도 교복에 어울리는 장신구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신구를 위주로 장신구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성인용 장신구를 대리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도 교복에 잘 어울리는 학교 로고를 활용한 장신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1985).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9권 1호.
-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행

- 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 김영인, 강혜원(1981).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지 5권 2호.
- 김윤희(1991).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애, 이명희(1992).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18권.
- 남해영(1998). "중학생의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아, 박혜선(2000). "남자 중·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4권 5호.
- 안선경, 양숙희(2001). "복식에 대한 검열방식 연구: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와 방송복장심의 규제를 중심으로." 복식 51권 1호.
- 유덕화(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학교에서의 복장규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2000).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고교생의 계열 및 성별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권.
- 이명희, 이은실(200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 조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4권 2호.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1권 2호.
- 이수희(1988).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 강영희(1999). "중학생의 의복관여도에 따른 교복의 만족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권 6호.
- 정현주(2002). "우리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외류학회지 26권 7호.
- 최은영(2000).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병숙(1998). "의미분별척도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 평가." 한국외류학회지 12권 3호.
- 황진숙, 나영주(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 연구." 복식 49권.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외류산업학회지 4권 3호.

<http://www.sfi.co.kr>